

어린이 책꽂이

▲태국에서 보물찾기=보물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알아가는 '세계 탐험 만화 역사상식' 시리즈, 아름다운 열대의 자연과 신비로운 사원이 가득한 태국에서 주인공 광이와 토리는 태국 왕실을 지켜준다는 전설의 황금 불상을 찾아 떠난다.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엄청 큰 부벨라와 아주 조그만 지렁이의 우정이 야기. 서로 다른 모습과 가치관에 대해 편견을 갖기 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통해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따오기=새와 사람이 나누는 가슴 뭉클한 교감을 그린 실화다. 일본의 마지막 따오기인 깃짱이 자연에서 보호센터로 들어 오기까지의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인문교과를 만화로 엮은 '서울대 선선 시리즈'. 사유 재산 없이 서로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며 공동의 행복을 찾는 토마스 모어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도전! 어린이 CEO=어린이들의 일상이 경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알쏭달쏭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경제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폭군과 성군 그 누구가 정의하나

왕의 나라 신하의 나라 이이화 지음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말처럼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인간은 수많은 과오를 저지르며 역사가 되풀이해 왔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대의 관점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뒤바뀌며 희극과 비극이 엇갈렸던 것은 아닐까. 회비가 엇갈렸던 안타까운 역사 속의 인물들이 '사람냄새'를 풍기며 세상으로 나왔다.

역사적인 인물 32명에 대한 약전(略傳·간단하게 쓴 전기) 형식이 이 책은 한국 고대사의 지도를 그린다. 누가 성군이고 누가 폭군인가, 총질과 변질의 갈림길, 정적가의 고인-명분인가 살인가, 구중공필 여인의 눈물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이 책은 왕과 관료들이 역사 속에 남겨놓은 흔적을 토대로 역사적인 평가는 시대별,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시극 '이산'의 한 장면. 저자 이이화씨는 정조를 개혁정치를 실천한 성군으로 평가했다.

책에는 비운의 왕 왕종, 몽골에 맞서 투쟁을 한 무신이며서도 무신정권에 가담하지 않았던 김방경,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다 짧고 굵게 세상을 살다간 곧은 선비 이복,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 등 평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역사 속의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군과 성군, 충신과 역적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에 따라 평가기준은 달라진다고 말한다.

저자는 변질자로 낙인찍힌 신숙주에 대해서는 그의 문화적 업적을 하나씩 열거하며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 갔을 뿐, 비난받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깨끗한 벼슬아치"라고 재평가한다.

역적으로 폄하됐던 정도전에 대해서도 "적어도 고려말 정치·경제적 모순을 바로잡고 사회적 혼돈을 수습하려고 나선 혁명가이자 실질적인 통치이념을 정립한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이산'(MBC)과 '왕과 나'(SBS)에서 맹활약 중인 정순왕후와 인현왕후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던 왕비였지만, 사림과 권력의 틀바구니에서 부대끼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들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적 상황과 객관적 사실을 두루 살펴 엄정해야 한다"며 "지나친 포퓰리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물로 읽는 한국사 시리즈는 왕과 신하를 필두로 혁명가와 종교가, 실학자, 예술가, 개화기 지식인, 독립운동가 등 260여 명의 역사인물의 이야기를 10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김영사·1만2천 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국 대물림 맛집·음식 이야기 보따리

16세 소년, 227일간의 태평양 표류기

이맛을 대대로... 김순경 지음

대를 이어오면서 전해지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의 개념을 넘어 사람 내음 나는 구수한 이야기 보따리이기도 하다.

칠순이 넘는 나이에도 전국을 유랑하며 맛기행 중인 맛 칼럼니스트 김순경이 쓴 '이 맛을 대대로 전하게 하라'는 저자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손맛의 주인공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곁에서 지켜본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호남 양반집 삼차림의 명백을 이어온 이기남 할머니의 순창 고추장 장아찌, 송어알을 자연 건조시켜 만든 김광자 할머니의 영암 어란, 80년 넘게 가게를 지켜온 김영식 부부의 형제 추억탕, 시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가는 진주 천황식당의 전주 비빔밥 등 저자가 소개하는 13가지 음식은 모두 100여년 가까이 대를 이어 지켜온 음식들이다. (크리에이트·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이 이야기 안 마릴 지음

2002년 부커상 수상작인 '파이 이야기'는 16세 인도 소년 파이가 뱀을 호랑이와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227일 동안 태평양을 떠돌아 다닌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파이 이야기'의 일러스트레이터 새롬씨가 출간했다.

책에는 홀로 남겨진 소년이 살아가기 위해 인간됨을 쓰는 과정, 절망과 고독이 담겨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문체와 토미슬라프 토르야나르의 상상력 가득한 그림이 함께 펼쳐진다.

미국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후 3년 연속 상위에 머물렀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출간된 바 있다. 영화 '아말리에'를 만든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손에서 영화로도 준비 중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촬영 중인 이 영화는 내년 상영될 예정이다. (작가정신·1만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오상조의 '동구밖 당산나무'

그곳에 고향이 있다. 지금은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들 고향이 없겠는가 만은 그래도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속에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식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때문이다.

병원에서 태어나 줄곧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들은 죽음도 병원이나 아파트에서 맞이한다. 곧 고향이 어느 아파트이거나 어느 병원인 셈이다.

사진작가 오상조 선생이 펴낸 '동구밖 당산나무'에는 우리들이 고향이라고 부를만한 곳들이 아늑하게 들어있다. 흑백사진으로 보여주는 시골 마을 곳곳의 풍경은 고향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고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갖고 싶게 하는 그리움을 낳는다.

마을 곳곳의 입구에 서있는 당산나무를 담아내고 있는 사진들 속에 촌로의 느긋한 미소가 있고, 아주머니들의 해초를 뜯는 모습이 있다.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아버지가 있고 그런 아버지의 발을 누를소가 있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늑해지고 슬레없이 눈시울이 젖는 이유는 뭘까?

지금은 고향이 어디나고 묻는 사람들도 드물다. 고향이 어디건

사진 속 고향, 푸근함·그리움 절로



오늘 하루도 버거운 날을 견디는 처지에 펜시리 울적해지거나 약해지기 싫어서 그저 입술을 깨물어 버려온 한다.

'동구밖 당산나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기가 어려운 책이다. 좀처럼 상념에 빠져서 한 장을 넘기려면 아직 추억이 남아있거나 눈시울이 덜 젖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꼭 물었던 입술이 스스로 풀려진다.

아직도 넘겨야 할 페이지는 많은데 좀처럼 입구가 나지 않는다.

한 장을 더 넘기면 당장이라도 수파에 달려가 뒷병들이 소주를 사올 것만 같다. 그래도 좋겠지만 뒷병들이 소주를 다 마시면 뒷병들이 눈물을 흘리고 말 것 같다.

무슨 책이 이렇게 아늑하고 따뜻해서 더구나 슬프기까지 해서 가슴을 옥죄게 하는지... 예술이라는 것이 천상 주인이 먹고 뱉어 놓은 똥 같은 것이라 주인의 성품과 체질을 아니 닮을 수는 없는 것이라 사진작가 오상조 선생의 모양새와 성품을 아니 들춰볼 수도 없을 것 같다.

사진작가 오상조 선생은 참 눈이 맑은 사람으로 그에 걸맞게 미소까지 아늑한 사람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잠깐 앉았노라하면 그가 담아낸 사진 속 풍경과 똑 닮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을 금세 할 수 있다.

'동구밖 당산나무'는 정교한 기계와 오상조 선생의 아늑한 마음 자리가 어우러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이렇게 좋은 선물이 구하기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주는 마음을 보기도 어렵다.

누군가 그림자가 무거워 보이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야. 이렇게 귀한 선물을 세상에 선물한 사진작가 오상조 씨께도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든다.

(손병현·소설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st Century Real Estate Development Co., Ltd.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 for 2007 regional forecasts.